

1920년대 항일 무장투쟁을 이끈 한의계 독립운동가들

김명섭
단국대 자유교양대학

The Independence Activists in the field of Korean Medicine Leading the Anti-Japanese Armed Struggle in the 1920's

KIM Myung-seob
College of Liberal Arts, Dan Kook University

Due to Japanese imperialism's invasion of Korea and the policy of exterminating national culture, many independence activists from Korean medicine participated in the Manchurian Independence Army activities and the fight for freedom. Kang Woo-kyu, who threw a bomb at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on September 2, 1919, can be cited as a leader who learned East Asian medicine. Kim Kwanje, who organized a secret organization by opening an East Asian medicine clinic in Gimhae, Gyeongsangnam-do, was involved in the struggle of the medical corps while working as a medical student. He is accused of providing a shelter by treating members of the Uiryeddan. In 1919, the Manchurian Independence Army unit, which launched the March 1st Movement armed struggle, was established, and those who served as military doctors in various organizations can be found. Park Se-jung, who participated as an independent soldier at the age of 47, treated wounded soldiers and patients as a military doctor. A branch office was also created by raising military funds and participating in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Jang Hyong was able to raise independent military funds, campaign for the provisional government's independence petition, and lecture across the country mostly disguised as an East Asian medicine doctor, which led to several imprisonments for "fraud charges under the guise of similar medical practices".

Key words : Korean medicine, medicine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an armed struggle, Independence Army

I. 머리말

1906년 조선통감부를 설치한 이래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한 조선총독부는 1913년 11월 15일 「의사규칙」과 「의생규칙(醫生規則)」을 별도로 반포한 데 이어 1914년 10월 「안마술·침술·구술영업 취체규칙」 등을 제정·공포하였다. 일제는 의사규칙 제1조를 통해 조선총독과 내무대신이 지정한 의학교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의사로 부를 수 없게 했으며, 의생의 조건을 '조선에서 2년 이상 의업을 한 자'로

제한하여 한의사로의 새로운 인재 유입을 가로막았다. 게다가 "3년 이상 의업을 수학한 조선인에게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당분간 5년 이내의 기한을 부여한 의생면허를 부여한다."고 규정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면허를 유지하기 힘들게 만들고 지역도 제한하였다. 서구의학을 우대하여 영구적인 면허를 주는 반면, 전통 한의학을 비과학적인 미신으로 치부하는 이러한 정책은 한의학을 말살시키려는 일제의 식민지배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받는다.¹⁾

일제의 한의학 말살정책은 전통적으로 한의업에 종사해 온 많은 이들의 불만을 심화시켜 저항운동을 불러일으켰다. 1915년 한의사 원로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조직된 '전선의 생대회(全鮮醫生大會)'는 민족의학의 명맥을 잇고자 하는

접수 ▶ 2023년 11월 06일 수정 ▶ 2023년 11월 27일 채택 ▶ 2023년 11월 21일
교신저자 ▶ 김명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613호

Tel : 031-8005-2635 E-mail : hak6278@hanmail.net

본 논문은 2023년 대한학원의 연구비 지원사업으로 수행되었음.

1)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서울:한울출판사. 1997; 박윤재. 『한의학, 식민지를 앓다』. 서울:아카넷. 2008; 신동원. 「1910년대 일제의 보건의료정책」. 한국근대사학회와 문화2. 2005:333-370; 황영원. 「일제의 조선 한의계와 한의학의 식민지적 근대」.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8; 박지현. 「식민지기 의생제도의 정책과 운영 - 『의료관계법제례규칙(醫療關係法制例規程)』 중 의생 관련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2019;106:317-343 등.

한의학계의 치열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이에 많은 한의사 출신의 민족지사들이 1919년 3·1운동은 물론 비밀 결사 활동, 만주 독립군 및 의열투쟁 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들의 독립운동 참여는 한약재를 구매하는 한약방이나 한방치료를 받은 여관 등을 비밀연락과 군자금 조달의 장소로 활용할 뿐 아니라 치료나 약재 구입을 명분으로 지역 마을과 야산을 이동하면서 정보수집을 하는 등 전문직종의 특수기술을 활용한 중요한 독립활동의 하나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의사 출신 민족지사들의 독립활동을 보여줄 개관적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독립운동가로 조명받은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한의사 출신 민족지사는 2020년 신흥균(申洪均)·신광열(申光烈) 한의사를 포함해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현실은 양의학계의 발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한의사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조사·연구가 미진한 현실을 잘 반영해 준다.²⁾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전통 한의사 또는 의생 출신의 민족지사들 중 항일 의열투쟁을 비롯해 만주 독립군 활동 등 무장독립투쟁에 참여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한의사 출신 독립지사들의 항일 의열투쟁

1. 한의사 강우규의 의열투쟁

전통 한의학을 배운 자로서 항일 의열투쟁을 펼친 인물 중에는 대한국민노인동맹단 단원으로서 남대문 역사에서 신임 조선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강우규 의사를 우선 꼽을 수 있다. 강우규(姜宇奎, 1855~1920)는 평안남도 덕천군 무릉면 출신이다.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부모를 여의고

누나의 집에서 자라면서 서당에서 공부한 후 1884년 함경남도 홍원군(洪原郡)으로 이사하여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이 무렵 그는 고향에서 배운 한의학 기술을 바탕으로 시기에 한의원을 열고 한의학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³⁾ 1919년 9월 2일 거사 직후 일본 경찰에 피체된 10월 6일 강우규가 직접 진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범인의 성명

출생지 평안남도 덕천군 무릉면 제남리(德川郡 武陵面 濟南里)

본적 함경남도 홍원군 용원면 영덕리(洪原郡 龍源面 靈德里)

2. 범죄의 개요

“본인은 지금으로부터 약 33년 전 출생지로부터 본적지에 이주하고 **약 10년 전 북간도 두도구(頭道溝)에 이주하여 매약상(賣藥商)을 경영하고 있었으며**, 다시 4년 전에 현 주소지에 사립 동광(東光)학교를 창설하고, 자신이 그 학교의 교장에 임하였다. 또 예수교 장로파 신도로서 동교의 포교에 중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학교 생도 및 거주 선인에 대하여 배일사상을 고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⁴⁾”

2) 한의사의 독립운동을 다룬 연구성과로는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 인물실록』, 파주:들녘, 2011; 차혜영, 「식민지시대 폴란드 한의사 유경집의 유라시아 디아스포라와 해외 조선인 네트워크」, 한국근현대사연구, 2019;89:101-141; 정상규, 신민식, 「신흥균 한의사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 의사학회지, 2021;34(1):31-46; 이상화, 「독립운동가 신흥균 한의사에 대하여」, 한국 의사학회지, 2022;35(2):69-82; 한태일, 남창희, 「김중건의 원종(元宗)과 한의사 신흥균의 항일 독립운동」, 역사와융합, 2022;13:43-72; 이계형, 신민식, 정상규, 「『월남유서』를 통해 본 신흥열의 생애와 독립운동」, 민족문화논총, 2022;82:451-486; 정다원, 복기대, 「대일항쟁군의 전통의학 이용에 관한 고찰」, 역사와융합, 2023;14:517-540 등을 참조.

3) 강우규 의사에 대한 연구성과로는 김창수, 「일우 강우규의사의 사상과 항일의열투쟁」, 이화사학연구, 2003;30:471-485; 박환, 「강우규의 의열투쟁과 독립사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008;55:117-160; 정운현, 「강우규 : 노구를 민족제단에 바친 의열투쟁가」, 서울:역사공간, 2010; 은혜린, 「강우규 평전 : 항일의열투쟁의 서막을 연 한의사」, 서울:책미래, 2015; 박주성, 김제기, 「러시아 연해주 3·1독립만세운동과 대한국민노인동맹단 연구」, 재외한인연구, 2020;52:42-82 등을 참조.

4) 조선총독부 경무국 고등경찰과, <高警 제28453호 : 總督에 대한 兇行犯人 逮捕의 件(1919.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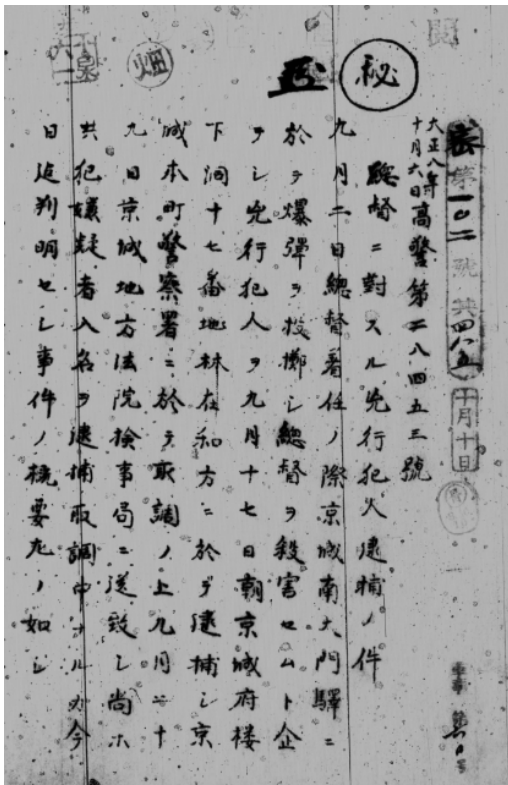


그림 1. 총독에 대한 흥행범인 체포의 건(1919.10.6.)

강우규가 고향에서 한방기술을 익혀 한의사를 활동했다는 사실은 1920년 4월 15일 그의 공소심판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우규는 기독교 신자이며, 어린 시절 서당에서 10세 때 한문을 익혔을 뿐 각지로 돌아다니며 별로 공부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재판장이 “피고가 의술을 잘해 최자남(崔子南)의 처의 병을 고쳐 주었다니 정말인가?”고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별로 의술을 안다고 할 수는 없으니, 어렸을 때 한방의 술을 좀 배우고 곁해서 내가 그때 약장사를 하였다.”⁵⁾

이러한 진술 내용으로 보아 강우규는 고향인 평안남도 덕천군에서 한방의술을 익혀 한의사로 활동하여 재력을 모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30대 초반인 1885년경 흥원군으로 이주한 후에는 동네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의원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흥원읍에서 포목과 담배, 도자기, 남비, 의류 등 일용잡화를 판매하는 잡화상을 25년간 경영하며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었다. 이 무렵 신민회 회원인 이

동휘(李東輝)가 자주 흥원을 들러 그와 더불어 교류하면서 기독교인이 되는 등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1910년 일제에 의해 국망에 이르자, 강우규는 독립운동의 큰 뜻을 품고 만주로의 이주를 계획하였다. 1911년 이른 봄 두만강을 건너 북간도의 두도구(頭道溝)로 망명하면서 그는 고향에서 익힌 한방 의술을 바탕으로 지역 동포들을 치료해주고 환자를 돌보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1915년 이미 환갑을 넘긴 강우규는 요하현(饒河縣) 옮겨 잡화상을 통해 번 돈으로 신식교육과 옥영사업을 하며 신흥촌(新興洞)을 건설하였다. 신흥동은 중국과 러시아 접경지의 북만주 교통의 요지이기에 그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왕래하였고 농토를 개간하여 1917년에는 동광(東光)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 학교에서 대한 지리와 역사, 체육과 창가 등 민족교육과 함께 신식학문을 교육하는 데 주력하였다. 나아가 그는 독립운동 단체와의 연락을 취하는 한편, 행상 의료업을 하면서 학교 경비와 군자금 모금에도 적극 참여하였다.⁶⁾

1919년 3·1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소식이 북간도에도 번지게 되자, 그는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新韓村)에 찾아가 대한국민노인동맹단(大韓國民老人同盟團)에 가입하였다. 약 5천여 명에 달하는 노인동맹단은 조직적인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하기 위해 대표단을 서울에 파견했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다.⁷⁾ 이에 분개해 국내에 잠입해 조선 총독 등 요인 암살을 결심한 강우규는 영국식 수류탄 1개를 구입하여 그해 6월 14일 원산으로 향하였다. 8월 4일 서울로 잠입한 강우규는 신임 조선총독으로 부임하는 사이토 마코토(齋藤實)가 서울로 온다는 신문보도를 접하고 거사 준비를 하였다.

1919년 9월 2일 오후 5시 남대문역에서 총독일행 환영식에 참여한 강우규는 사이토 총독 일행이 쌍두마차에 오르는 순간에 품고 있던 수류탄을 던졌다. 폭탄은 비록 총독이 탄 마차를 손상시키지 못했지만 그치고 적살하는 데 실패했으나, 신문기자와 수행원과 경찰 등 37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거사 직후 현장을 빠져나와 여관 등지로 피신한 강우규는 15일 만에 종로경찰서의 조선인 경부인 김태석(金泰錫)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일본 사법부는 그에게 살인 및 폭발물 취체법 위반죄를 적용해 1920년 2월 3차례의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였다. 그는 무고한 동지들의 형량을 경감해 주기 위해 항소하였

5) 은혜린. 『강우규 평전 : 항일의열투쟁의 서막을 연 한의사』. 서울:책미래. 2015:59에서 재인용.

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7권. 서울:고려도서무역출판부. 1975:288-291.

7) 박주성, 김재기. 「러시아 연해주 3·1독립만세운동과 대한국민노인동맹단 연구」. 재외한인연구. 2020;52:42-82 참조.

으나, 재판장은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확정하였다. 그는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며 흐트럼 없이 당당하게 항일 의지를 피력하였으며 11월 29일 66세의 생을 마감하였다.⁸⁾ 강우규의 의거는 식민지 통치정책에 대한 한민족의 저항을 문화정치로 호도하여 새로운 통치질서를 확립하려는 일제 당국의 지배정책의 파탄을 예고하는 것이며 끊임없는 민족 독립의식을 재확인해 주는 항일 무장·의열투쟁의 한 모형을 제시해 준 사건이었다.

2. 한의사 김관제의 의열단 지원 활동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열단의 항일 의열투쟁에 관여한 지사가 있으니 김관제이다. 김관제(金觀濟, 1886.6.8.~1951.7.1.)는 경상남도 고성군(固城郡) 개천면(介川面) 명성리(明星里)에서 출생하였다. 본관은 경주(慶州)이며, 호는 월강(月岡)이다. 1910년대 경남 김해(金海)에서 한의원을 개원하였다.⁹⁾

김관제는 1909년 안희제(安熙濟)·남형우(南亨祐)·윤세복(尹世復)·이시열(李時說)·이원식(李元植)·김동삼(金東三)·배천택(裨天澤)·박중화(朴重華)·신백우(申伯雨)·김태희(金泰熙) 등 8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한 신민회(新民會) 계열의 비밀청년단체인 대동청년당(大東靑年黨)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10년 일제의 강제합병으로 나라를 잃게 되자, 김관제는 1911년 만주로 망명하였다. 그는 윤세복·이시열 등 동지들과 함께 봉천성 환인현(桓仁縣)에 동창학교(東昌學校)를 설립하고 그 교사가 되어 교포자재에 대한 독립사상의 고취와 교육구국운동에 종사하였다. 동창학교가 폐쇄되자 1915년에 압록강 대안 봉천성 흥경현(興京縣)에 일신학교(日新學校)를 설립하여 교사로 활동하였다. 1916년에 일신학교는 흥동학교(興東學校)로 명칭을 바꾸었다.

1919년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때, 김관제는 조선 국권회복단의 단원이며 대동청년단의 모험부장(冒險部長)이던 경남 창원군(昌原郡) 진전면(鎭田面) 출신 변상태(卞相泰)와 함께 경남 지역으로 파견되었다. 그는 경남 동부 지역의 밀양·부산·김해·마산 등지를 순회하며 만세시위를 독려했다.

1920년 7월 중국에서 활동 중인 의열단체인 의열단의

‘제1차 암살과괴계획(第一次暗殺破壞計劃)’을 수립하여 실행할 무렵, 35세의 김관제는 김해에서 의생으로 활동하다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피체되었다. 의열단 단원으로 국내거사를 기획한 이종암(李鍾岩)의 각기병을 치료해주며 은신처를 제공해 준 혐의로 여겨진다.¹⁰⁾ 이 사건은 1920년 3월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의열단의 김원봉(金元鳳)·곽재기(郭在驥)·이성우(李成宇)가 폭탄 3개를 경남 밀양의 김병환(金鉞煥)에게 밀송하였다는 사실이 경기도경찰부에 탐지되어 폭탄이 압수된, 이른바 밀양폭탄의거(密陽爆彈義舉)와 같은 해 5월 이성우가 보낸 폭탄 13개와 권총 2정, 폭탄 부속품 등이 경남 창원군 진영의 강상진의 집 창고에서 압수된 이른바 진영사건(鎭營事件)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관련자 20명이 함께 피체되어 1921년 3월 기소되었는데, 경성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6월 22일 결심공판에서 12명이 유죄로 판결되어 형을 받았다. 이때 김관제는 불기소 처분으로 풀려났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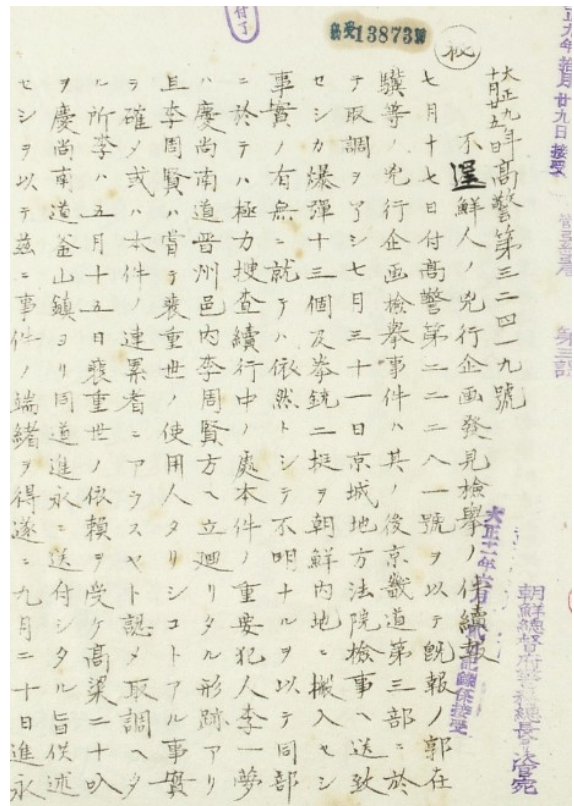


그림 2. 不逞鮮人の 兇行企劃發見檢舉에 관한 件 續報(1920.10.25.)

8)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독립유공자공훈록편찬위원회,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 서울:국가보훈처, 1990).
 9) 독립유공자공훈록편찬위원회, 『독립유공자공훈록』 1권, 서울:국가보훈처, 1986.
 10) 조선총독부경무국, <高警第 32419호 : 不逞鮮人の 兇行企劃發見檢舉에 관한 件 續報>(1920.10.25.); 김영범, 「의열단 창립단원 문제와 제1차 국내거사기획의 실패 전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17;58:5-57.
 11) 김영범, 『의열투쟁 1- 1920년대』, 천안: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147-151.

1924년 김관제는 대구로 이전하여 약전골목에서 복양당 한의원(復陽堂韓醫院)을 운영하였다. 1938년 대구의생회(大邱醫生會)를 개편하여 경북의생회(慶北醫生會)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복양당한의원은 독립운동가들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인사가 드나들었다고 한다. 1944년 8월 이상훈(李相勳)·정운해(鄭雲海) 등과 함께 여운형(呂運亨)이 조직한 조선건국동맹(朝鮮建國同盟)의 경상북도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45년 7월 대한애국청년당(大韓愛國靑年黨)의 부민관폭파사건(府民館爆破事件)의 여파로 일어난 8월 4일의 조선건국동맹사건(朝鮮建國同盟事件)으로 체포되어 대구형무소 미결감에서 공판을 기다리던 중 광복을 맞이하였다.¹²⁾

Ⅲ. 의생 출신 독립지사들의 항일 무장투쟁

1. 만주 독립군 활동

1) 독립군보합단의 군의(軍醫) 박세정

1919년 3.1 운동 이후 많은 항일 무장독립운동단체가 창설되었는데, 주로 평안북도 의주군과 용천군, 선천군, 철산군에 거주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단체가 독립군보합단이다. 1919년 평안북도 의주군 곽령삭면 동암리 동암산(東岩山)에서 창설된 이 단체는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인 김동식(金東植)·백운기(白雲起) 등이 대조선청년결사대를 조직하였다. 이후 단원이 50여 명으로 확대되어 김시황(金時晃)을 비롯해 김도원(金道源)·이광세(李光世)·조원세(趙元世)·한우종(韓禹宗)·박초식(朴楚植)·박중식(朴仲植)·박완식(朴完植) 3형제 등이 합류하였다. 단장에 김시황, 부단장에 김중양(金仲亮)을, 김동식은 총무에 선임되었고, 군의로 박세정(朴世正)이 참여하였다. 대조선독립보합단(大朝鮮獨立普合團), 또는 대한독립보합단(大韓獨立普合團)이라고도 불렀다.¹³⁾

보합단 단원들은 주로 독립운동을 위한 군자금을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송금하는 한편, 여러 무기를 구입해 일제 관공서 등 주요 기관 파괴와 친일 밀정 처단 등의 활동을 주로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모집한 군자금의 규모는 총 83건, 5,700원에 달했다고 한다. 1920년 9월 문치무(文致武)라는 이름난 친일 밀정을 처단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해 10월 2일 철산군 주둔 일본군이 보합단의 근거지를 습격하여 단원 3명을 사살하고 관계자 14명을 체포하여 와해되고 말았다.¹⁴⁾ 보합단은 이후 압록강을 건너 관전현으로 본거지를 옮겨갔고, 단원들도 대한독립단·광복군총영 등에 합류하여 활동을 계속하였다.¹⁵⁾

1920년 11월 3일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에게 보고한 정보 보고서인 <비밀결사 대조선독립보합단 검거> 문서에 따르면, 재무차장인 백운기(白雲起)가 1920년 9월 30일 대원 20여 명과 함께 철산군 참면(站面)의 참사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러던 중 이를 추적하던 철산경찰서 경찰들과 교전 끝에 대원 3명이 피살되고, 백운기와 군의 박세정이 피체되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박세정은 '의주군 고관면(古館面) 서하동(西下洞) 348번지'에 거주했으며, 1920년 당시 47세로 '군의'로 활동하였다. 이에 따르면 박세정은 '배일사상을 가진 자'로서, 1919년 3월 이후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의주경찰서와 신의주경찰서에서 취조를 받은 바 있고 석방되었는데, "의생으로서 독립군 보합단의 군의(軍醫)가 되어 단원과 부상병, 환자 등을 은밀히 치료하였다."고 한다.¹⁶⁾

2) 대한독립청년단연합회 심병조와 안형섭

심병조(沈秉祚, 1894.10.14.~1945.9.25)는 평안북도 선천읍(宣川邑) 선북동 출신의 한의사이자. 1919년 선천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하다가 만주로 망명하였다. 1919년 11월 만주 관전현(寬田縣) 일대에서 공화주의를 지향하며 상하이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단체인 대한독립청년단연합회(大韓獨立靑年團聯合會)가 창설되자, 이에 가입하였다. 주로 평안도 일대와 만주 지역에서 의병으로 활동한 인사들을 주축으로 하는 이 연합회는 그해 12월 25일 관전현 향로구(香爐溝)에서 제1회 총회를 열어 안중근 의사를 변호한 변

12)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3)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서울:대한민국공보처, 1949:67-69; 김영범, 『의열투쟁 1- 1920년대』, 천안: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78-81.

14) 「보합단원 김형석 4명 사형집행」, 동아일보, 1922년 2월 4일.

15) 박결순, 「1920년대초 국내무장투쟁단체의 활동과 추이 : 평북 거점 천마산대, 보합단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89:3:281-315.

16) 조선총독부 경무국 고등경찰과, <高警第 33853호 : 秘密結社 大朝鮮獨立普合團 檢學>(1920.11.3.)

호사 안병찬(安秉贇)을 총재로 추대하고 부총재 김찬성(金燦星), 총무부장 김승만(金承萬), 서무부장 최지화(崔志化), 재무부장 김시점(金時漸), 편집부장 이춘근(李春根), 교육부장 이탁(李鐸), 통신부장 오학수(吳學洙), 교제부장 김두만(金斗萬), 노동부장 박춘근(朴春根), 경호부장 여순근(呂淳根)을 선출하였다. 기관지 주필은 오능조(吳能祚)가 맡았다.17) 심병조는 창설에 참여하여 서기로서 활동하였다.18)

연합회에 가입한 청년단은 59개 단체에 이르렀고 회원은 약 3만 명에 이르렀다. 총재 안병찬은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절대 지지하고, 각 지방에 의용단을 조직해 무기를 구입하여 대규모 독립전쟁을 준비했다. 연합회는 우선 일본 군경과 친일세력 토벌에 주력하기로 하고 기관지를 발간해 세계 대세와 독립사상을 선전하였다. 또한 상하이 임시정부와도 긴밀히 연계하여 독립자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19)

연합회는 특히 각 단에서 10명분 이상의 의용대원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여 자력으로 전쟁을 준비하였다. 전투원인 의용대원은 평안북도 벽동(碧潼)·창성(昌城)·의주·삭주 등지에서 항일투쟁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하지만 1920년 5월 16일 일본 경찰이 본부인 관전현 홍통구(弘通溝)를 습격하여 총재인 안병찬을 비롯한 지도부 5명을 체포한 데 이어 7월 오학수 등 다수의 회원을 체포함에 따라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이때 피체된 52명의 대원 중에는 안형섭(安衡涉)이란 인물도 있는데, 일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그는 평안남도 옥천면 북창리 출신의 '의생'인 것으로 조사되었다.20) 이후 부총재인 김승만이 연합회를 이끌다가 광복군사령부로 발전적인 해체를 단행하였다.21)

심병조는 이 무렵 광복군사령부의 군기대 부대장에 임명되어 활약하였다. 이어 1921년 국내로 잠입해 군자금 모금활동을 하던 중 평안북도 제3부 형사대에 의하여 의주에서 피체되었다. 이에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 3년 5개월만에 평양형무소에서 출옥한 심병조는 1924년부터 선천군(宣川郡)에서 한의사로서 활동하면서 빈민들을 돕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1928년에는 동아일보사 안동지국(安東支

局) 기자로 활동하였다. 1938년에는 평안남도 개천에서 신사참배 거부 및 선동자로 지목받아 일본 경찰의 예비검속을 당하여 구속된 뒤에도 항일운동을 계속하였다.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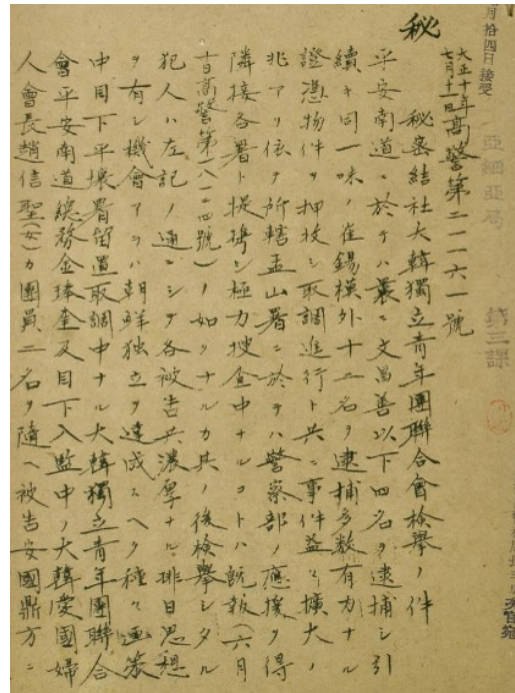


그림 3. 秘密結社 大韓獨立青年團聯合會 檢學的 件(1921. 7.11.)

3) 대한광복단의 군의 김대용과 박성용

대한광복단(大韓光復團)은 1919년 3·1운동 이후 한말 간도부윤을 지낸 이범윤(李範允)이 의병세력들을 규합해 연해주 추풍(秋豐)에서 조직되었다. 이어 그해 9월 북간도 지역의 공교도(孔敎徒)로서 광복단을 조직한 단장 김성극(金星極)과 전성륜(全聖倫) 등이 이범윤을 단장으로 추대하여 1920년 1월경 대한광복단으로 통합되었다. 대한제국 황실을 존중하여 군주제로의 회복을 지향했으며, 왕청현 대감자(汪淸縣 大坎子)에 근거지를 두었다.23)

17) 김승학. 『한국독립사』 하권. 서울:통일문제연구원. 1965; 박환. 「대한청년단연합회의 성립과 활동」. 『만주지역 한인민족운동의 개발건』. 서울:국학자료원. 2014.
 18) 독립유공자공훈록편찬위원회. 『독립유공자공훈록』 1권. 서울:국가보훈처. 1986.
 19) 항민호, 홍선표. 『3·1운동 직후 무장투쟁과 외교활동』. 천안: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54-58.
 20) 조선총독부 경무국. <高警第21161호 : 秘密結社 大韓獨立青年團聯合會 檢學的 件>(1921.7.11.)
 21)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서울:대한민국공보처. 1949; 윤병석, 김창순, 이현희, 박성수, 신용하, 전준 외. 『개발갈 한국독립운동사』. 서울:한국일보사. 1987.
 22)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독립유공자공훈록편찬위원회. 『독립유공자공훈록』 1권. 서울:국가보훈처. 1986).
 23) 김희주. 『대한광복단의 민족운동 연구』. 과주:한국학술정보. 2006; 반병률. 『1920년대 전반 만주·러시아지역 항일무장투쟁』. 천안: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대한광복단의 조직은 본부와 분단-지단의 체제를 갖추었다. 무장투쟁을 위한 독립군단이었기에 군대를 양성해 국내로 진격하고자 하였다. 군무부를 설치해 무장투쟁을 선언한 대한광복단은 1920년 11월 국내·외에 분단과 지단을 설치했는데, 갑산(甲山)과 안도현(安圖縣) 분단이 대표적이다.²⁴⁾

김좌봉(金佐鳳)·김석태(金錫泰)이 맡은 갑산분단은 60여 명이 참여했는데, 갑산군내에서 교사나 의사, 전직 군수와 순사·구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내 진공작전에 필요한 무기구입을 위해 군자금 모집에 적극 나섰다. 이에 군자금 모집원을 국내로 잠입시켜 활발히 모집하였다. 이렇게 국내로 파견된 모집자들 중 다수가 일본 경찰에 의해 피체되었다. 1920년 12월 평안남도 강서경찰서에 의해 피체된 광복단 군자금 모집자 4명 중에는 ‘의생(醫生) 김대용(金大用) 47세’도 찾아볼 수 있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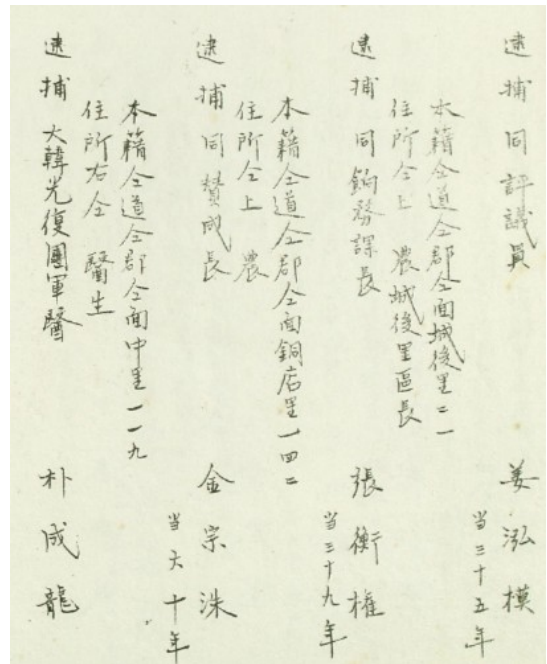


그림 5. 大韓光復團 甲山分團 檢舉(1921.4.14.)

갑산분단은 1921년 4월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던 중 발각되어 단장과 부단장 및 평의원과 구장 등 60여 명이 피체되었다. 이 중 ‘대한광복단 군의 박성용’이 눈에 띈다. 그는 당시 27세로 주소지는 ‘함경남도 갑산군 진동면 동점리 262’로 되어 있다.²⁶⁾ 이렇게 어렵게 군자금을 모집한 대한광복단은 단원 3백여 명 규모로 성장하여 김성극(金星極)·홍두식(洪斗植) 등의 지휘로 통제되었으며, 장총·권총 3백정 정도로 무장하였다. 각지에 분단·지단을 설치하여 서로 연락, 호응하며 업무를 수행하였다. 1920년 10월 22일 북간도 독립운동 단체인 홍범도(洪範圖)의 대한독립군에 편성되어 청산리전투에서 대승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4) 대한독립단 단원 의생 강홍상

대한독립단은 1919년 4월 15일(음력 3월 13일) 만주 유하현 삼원보(三源保)에 서구 대화사(大花斜)에서 국내에서 항일의병을 전개했던 박장호(朴長浩)·조맹선(趙孟善)·전덕원(全德元) 등이 보약사(保約社)와 포수단 단체들을 통합하여 만든 한인 무장투쟁단체이다.²⁷⁾ 3.1운동 이후 국내에서 망명해 온 대한독립단은 그해 11월 한족회와 함께 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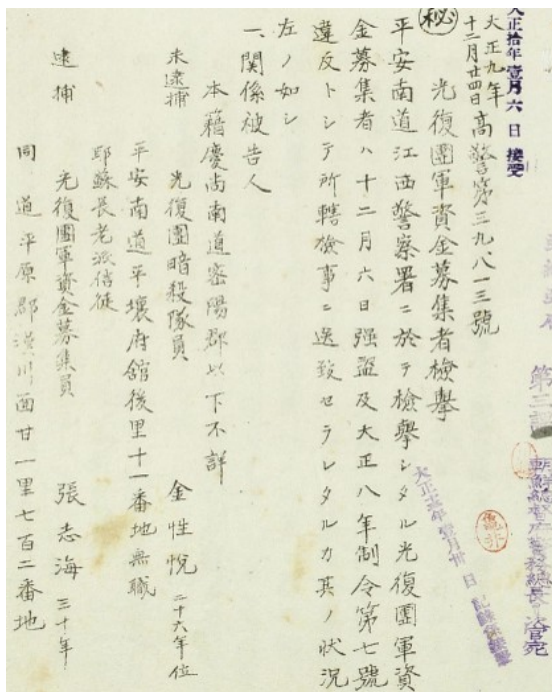


그림 4. 光復團軍資金募集者 檢舉(1920.12.24.)

24) 이성우, 『제만 대한광복단의 조직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천안: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25)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高警第39813호 : 光復團軍資金募集者 檢舉>(1920.12.24.)

26) 조선총독부 경무총장, <高警第9577호 : 大韓光復團 甲山分團 檢舉>(1921.4.14.)

27)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서울:대한민국공보처, 1949.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 지지 옹호하기로 하고, 그 예하에 들어가 지휘를 받기로 하였다. 삼원보에 도총재부를 두고, 국내외에 지단과 분단을 각각 설치해 운영했다. 박장호가 도총재를, 조맹선이 총단장을 맡았다.²⁸⁾

대한독립단은 국내로 진입해 독립전쟁을 벌이고, 만주 지역 한인들의 자치를 이루기 위해 이주민 100호마다 구관(區管)을 두고, 10개의 구마다 총관(總管)을 두었다. 그리고 국내외에 모두 100여 개의 지단·분단 등을 설치해 독립군의 모집과 편성·훈련에 주력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19년 8월 독립군의 규모가 1,500명 정도에 이르렀고, 그 중 700여 명을 하얼빈(哈爾濱)에 주둔하는 러시아 군대로 보내 군사 훈련을 받게 했다. 그리고 무기 구입과 국내 정보 수집, 군자금 모집 등을 위해 국내외와 연해주로 2개 소개를 파견하였다.

1919년 12월에는 대한청년단연합회의 안병찬(安秉瓚), 한족회(韓族會)의 김동삼(金東三) 등을 만나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통일된 군사기구를 남만주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것은 1920년 7월 26일 임시정부가 광복군관리부와 광복군사령부 규정을 제정하는 기초가 되었다.

이처럼 항일의병장들을 중심으로 독립군을 편성한 대한독립단은 일본의 군경과 친일파를 공격하고, 독립 군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활발히 벌였다. 1919년 9월 함경북도 갑산으로 진입해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공격했으며, 1920년 3월에는 평안북도 벽동군의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공격했다. 4월에는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면사무소를 습격해 파괴하는 등의 작전을 벌였다. 1921년 10월경에도 독립운동을 위한 군자금 모집활동이 활발했는데, 일제의 정보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평안북도 진영(鎭營)경찰서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대한독립단 단원들이 군자금 약 5500원을 모집하여 본부로 이송하던 중 경찰에 의해 단원 42명이 대거 피검되었다고 한다. 이때 피체된 단원 중에는 도 평의원을 지낸 김옥성(金玉性, 당시 35세)을 비롯해 ‘의생 강홍상(康弘祥, 당시 46세)’이 포함되어 있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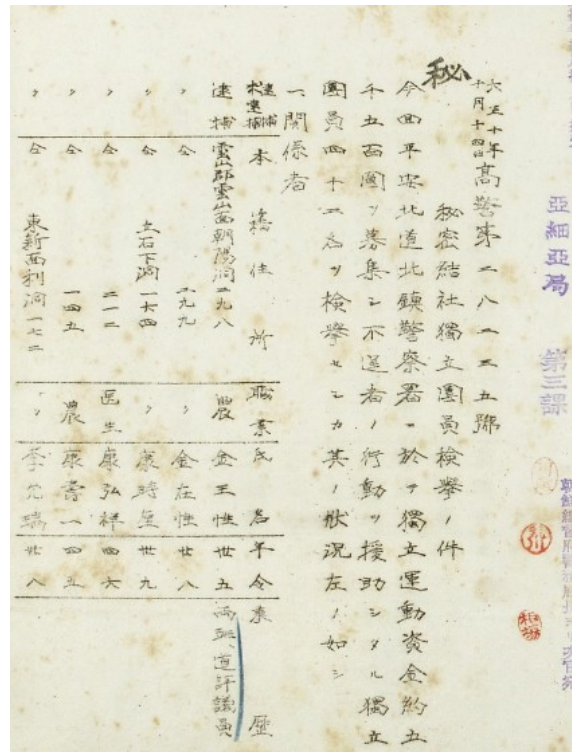


그림 6. 秘密結社 獨立團員 檢舉의 件(1921.10.14.)

대한독립단 단원들은 1922년 대한통군부(大韓統軍府)가 결성될 때 함께 참여했다. 하지만 그해 8월 대한통군부가 대한통의부로 확대·개편되는 과정에서 전덕원 등의 기원독립단원들은 참여를 거부하고 이듬해 따로 의군부(義軍府)를 결성해 활동했다.

2.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자금 지원 활동

1) 임시정부 경성교통국 이원직의 군자금 모금 활동

한의사 출신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으로 참여해 군자금을 모집한 지사로는 이원직을 꼽을 수 있다. 이원직(李元植, 1871.9.21.~1945.5.13.)은 경성부 도염동(都染洞 61번지)에서 출생하여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한성병원(漢城病院)에서 3년간 의학을 공부한 후 보성전문학교를 수학하였다. 그는 서양의학을 배웠음에도 그 한계를 느껴 한의학을 배웠다고 한다.³⁰⁾ 그는 1913년 조선총독부에서 「의

28) 대한독립단에 대한 연구성과로는 박환, 「대한독립단의 조직과 활동 - 북벽주의계열의 독립운동단체 일사례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989;3:187-204; 박성순, 「대한독립단의 위상과 대한광복군사령부의 성립」, 숭실사학, 2020;45:179-199; 김호진, 「한족회와 대한독립단의 성립과 연대양상」, 한국근현대사연구, 2022;102:81-112 등 참조.

29)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高警第28235호 : 秘密結社 獨立團員 檢舉의 件>(1921.10.14.)

30) 왕원균, 「한의사 출신 독립운동가 이원직-대한민국임시정부 경성교통국 활동을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1 참조.

사규칙」과 「의생규칙」을 따로 반포하여 차별을 두는 것에 정책에 큰 불만을 일으켜 저항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원직은 3·1독립만세운동의 열기가 남아있던 1919년 12월 지역유지들의 치료하기 위해 신의주로 갔다가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연락원을 맡아 비밀활동을 펼치고 있던 의주 출신의 신학렬(申學烈)을 만나 독립운동 참여를 권유받았다.³¹⁾ 이후 이원직은 1920년 4월 경성의 중국 요리집 아서원에서 신학렬의 부탁을 받은 대한청년단연합회의 단원인 오학수(吳學洙)를 만나 임시정부의 교통국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로서 이원직은 그해 5월 20일 종교(宗橋)예배당에서 회합을 갖고 경성교통국(京城交通局)을 설치하게 되었다. 경성교통국의 구성원으로는 의생 출신인 이원직을 비롯해 서적상인인 고경상(高敬相), 도장조각업의 정의도(丁義道), 박운삼(朴允三)·이기하(李起夏) 등이다. 구성원의 대다수가 기독교 신자였기에 종교의 예배당을 임시 사무소로 삼았다.

이원직은 환자 치료를 위해 자유롭게 지역유지의 집을 방문할 수 있는 한의사라는 직업의 이점을 십분 활용하여 독립운동을 위한 군자금 모집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는 1920년 5월경 서울 내자동(內資洞)의 권세중(權世重)이란 유지의 집에 가서 치료를 하던 중 종로경찰서 순사인 유갑순(柳甲順, 당시 26세)을 만나 그에게 군자금 모집에 참여는 물론 상해 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을 배포하도록 권유하였다. 일본 경찰에 의해 남겨진 이원직과 유갑순의 신문조서를 종합해 보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다.

(이원직) “나는 유갑순(柳甲順)에게 평양에서 온 박운삼(朴允三)에게서 독립신문의 배포를 부탁받았는데,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했더니, 유갑순이 그러면 자기가 그 배포를 담당하겠다고 했다.”³²⁾

(유갑순) “금년(1920년) 4월 말인지 5월 초쯤 내자동 노상에서 6원을 준 것이 틀림없다...,(중략)사리원에서 독립신문이 와 있는데, 그것을 가지러 갈 여비가 없다고 해서 그 돈을 주었다. 그것은 상대방의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내 쪽에서 주었다...(중략)

(판사 질문)최초 이원직에게서, 조선의 현황을 청년이 좌시하고 있을 때가 아니므로 독립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기는 상해 임시정부의 교통국과 연락을 취하고 있으니 독립신문의 배포를 담당해 달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승인했는가? (유갑순 대답) 그렇다.”³³⁾

이처럼 이원직은 당시 종로경찰서 순사로 재직 중인 유갑순에게 독립운동에의 동참을 권유해 동의를 얻은 다음 독립신문 배포를 맡긴 것이다. 그는 또 유갑순에게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공보를 보여주었고, 군자금 모집을 위해 적십자회 영수증도 건네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원직의 적극적인 권유에 감명을 받은 유갑순은 그의 아내와 먼 친척이며 친분이 있는 경신학교 1학년생인 문길(文吉, 당시 23세)에게도 참여를 권유해 독립자금을 출연하도록 하였다.³⁴⁾ 나아가 유갑순은 강원도 평강(平康)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동료 순사인 안교열(安教烈, 당시 22세)에게 독립운동 참여를 권유하여 약 500여 원에 이르는 군자금을 모집하도록 하였다.³⁵⁾

나아가 이원직은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공채를 모집하는 활동도 전개했다. 그는 황해도 사리원 교통국장에게서 받은 공채 500원권 2장과 100원권 3장을 주변 인물들에게 전달하였다. 경성 교통국 단원들인 정의도·이기하 등을 통해 지역유지들에게 전달되었으나, 거래는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1920년 7월 사리원 교통국 대원이 서울에서 독립신문 등의 문서를 전달하다가 경찰에 의해 발각됨에 따라 이원직을 비롯한 국원들도 7월 9일 피체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을 보도한 《조선일보》 1920년 8월 1일자 내용은 다음과 같다.

7월 9일에 시내 종교예배당(宗橋禮拜堂) 안을 별안간에 수색하고 동시에 큰 고리짜를 압수하며 한편으로 각 경찰서에서는 비밀 중에 활동을 하던 사실은...,(중략)시내 도렴동(都染洞) 한방의생(韓方醫生) 리원식(李元植)이 작년 12월에 신의주 방면에 갔다가 동리에 있는 불온사상을 가진 조선에게 감화를 받아서 금년 4월경 上海 假政府로부터 파견한 가정부 요원 오학수와 만나고 리원식은 경성교통국장이라는 대임을 상해 가정부로부터 가지고 이기하와 이병희 등의 동지자

31) 매일신보. 1920년 12월 26일; 1921년 3월 24일자.
32) 증인 李元植 신문조서(『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3. 1998).
33) 대질신문조서(李元植·柳甲順)(『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3. 1998).
34) 文吉 신문조서(『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3. 1998).
35) 安教烈 신문조서(『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3. 1998).

와 같이 조선독립신문과 신한청년,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라는 등 불온한 문서를 조선 지방에 배부하여 조선독립을 선전하여 민심을 선동하던 중...(중략) 한편으로 독립공채 군자금을 모집하기로 계획하였으나 군자금 모집은 아직 착수키 전에 종로경찰서에서 전기 사건을 탐문하고 李元植·李起夏·李炳奎·李明姬 등 외에 관계자 10여 명을 일시에 인치하여 취조 중이던 바 지난 30일에 검사국으로 송치하였다더라.³⁶⁾

이원직은 1921년 5월 17일 정치범죄 처벌령위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구형받아 복역하다가 1923년 5월 16일 출옥하였다. 이후 1944년 12월 3일 용산헌병대에 다시 피검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미결수로 수감되었다. 그러던 중 검사에게 조사를 받다가 1945년 5월 3일 옥중에서 사망하였다.³⁷⁾

2) 의생 아들 장형의 독립 군자금 모집 활동

의생 출신은 아니지만, 의생의 아들로서 부친으로부터 의술을 배워 독립군 양성과 임시정부를 위한 군자금 모집활동을 벌인 지사가 있으니 범정 장형의 사례를 들 수 있다.³⁸⁾ 장형(張炯, 본명 張世淡, 1889.1.18.~1964.12.30.)은 평안북도 용천군(龍川郡) 내하면(內下面)에서 인동 장씨 창익(昌益) 진사공(進士公)의 3남 3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장창익(張昌益, 1857.2.12.~1931.11.28.)은 진사시를 거친 유학자로서 1914년 5월 18일 조선총독부로부터 의생면허를 받은 한의사이다. 1914년 10월 16일자 <<조선총독부 관보>>에 따르면, 그는 그해 5월 18일 평안북도에서 의생면허를 취득하였다. 당시 그의 주소는 용천군 내하면 사직동(社稷洞)으로 되어 있다.³⁹⁾ 그리고 1932년 1월 16일자 관보에 사망으로 인해 의생면허증(번호 2544)을 반납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⁴⁰⁾

장창익은 호남형 얼굴에 흰 수염을 길게 기른 도골선풍

의 풍모를 하였고, 사상의학(四象醫學)에 기초하여 관상과 진맥에 조화가 깊었다고 한다. 약을 처방하는 데에도 『동의보감』을 철저히 활용하여 가난한 백성들이 값싸고 효능이 뛰어난 국산 약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선천뿐 아니라 평양이나 신의주, 나아가 서울과 대구 등지에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다고 한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치료를 해주어 많은 돈을 벌게 되자, 그는 서울 종로구 내수동과 충북 제천에도 집을 마련해 두었다고 한다. 한의학으로 익힌 치료 기술과 수익금은 아들인 장형(張炯, 본명 張世淡, 1889.1.18.~1964.12.30.)의 독립운동 활동에 중요한 밑천이 되었다.⁴¹⁾

저명한 한의사의 3남3녀 중 차남인 장형은 고향인 용천에서 한학을 배워 사립 동명(東明)중학교를 졸업한 후 1908년 부친의 사저가 있는 서울의 보성(普成)전문학교 법과에 입학하였다. 그러던 중 졸업을 앞두고 1909년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일제에 이양되는 ‘기유각서’에 반발해 재학생 전원이 학교를 그만두기로 하였다. 학교를 중퇴한 장형은 당시 대표적인 항일단체인 신민회(新民會)의 비밀회원으로 활동하다가 1911년 2월 만주로 망명하였다. 이때 평소 존경하던 손병희(孫秉熙) 선생을 만나 독립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군자금 조달하는 일을 부탁받고 이 일에 전념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⁴²⁾

만주로 망명한 장형은 곧 유하현 삼원보의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하여 군사훈련을 받았다. 이어 졸업 후에는 국내에서 망명하려는 청년들을 안전하게 신흥학교로 인솔하는 특무공작을 수행하였는데, 당시 상황을 보고한 일본 헌병대의 극비문서로 확인된다. 1914년 평양헌병대장이 작성해 조선주차헌병대사령부를 거쳐 조선총독에게 보고한 「불평선인의 행동 등에 관한 건」이란 극비문서에 의하면, 서울과 평양을 비롯한 전국에서 만주로 망명하려는 국내 청년들을 무사히 국경을 넘어 만주 독립운동 기지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 있다는 것이다. 평양헌병대의 조사에는 “장세담(張世淡, 장형의 본명)은 불평선인 청년들 사이에서 유력한 자로서, 항상 경성·안동현·봉천 등지를 왕복하면서 불평동지를 규

36) 「대계획의 독립사상 선전자 리원직 외 3명과 기타 관계자 10여 인은 경기도 삼부에 잡혀. 조선일보. 1920년 8월 1일자. 이 기사에는 이원직을 이원직으로 표기하였다.

37)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독립장을 추서하였다(독립유공자공훈록편찬위원회, 『독립유공자공훈록』 5권, 서울:국가보훈처, 1988).

38) 범정 장형에 대한 연구성과로는 한시준, 「단국대학의 설립정신과 정체성」, 동양학, 2013;53:129-143; 박성순, 「범정 장형의 독립운동과 그 위상」, 동양학, 2013;53:107-128; 이동희, 「일제강점기 사법처분을 통한 독립운동가 탄압-범정 장형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양학, 2015;58:135-150; 박성순, 「범정 장형의 만주에서의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2016;79:103-128; 박성순, 「우당 이회영과 범정 장형의 발자취를 찾아서」, 용인:단국대출판부, 2015 등을 참조.

39) 朝鮮總督府官報, 제663호(1914.10.16.)

40) 朝鮮總督府官報, 제1505호(1932.1.16.)

41) 박성순, 「우당 이회영과 범정 장형의 발자취를 찾아서」, 용인:단국대출판부, 2015.

42) 범정·혜당기념사업회, 『범정언행록』, 서울:단국인회, 1986:205.

합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⁴³⁾

장형은 독립군자금 모집에도 적극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장형은 1919년 이극(李極) 등 동지들을 만주로 찾아가 많은 군자금을 전달했는데, 이 자금은 대한청년연합회(단장 安秉瓚)의 오동진(吳東振)을 비롯해 신흥무관학교 교관인 오광선(吳光鮮), 대한독립단의 전덕원(全德元) 등에게 전해졌다. 나아가 현금과 폐물 등을 모아 송병조(宋炳祚) 목사를 통해 상하이 임시정부의 재무총장 이시영에게도 전달하였다고 한다.⁴⁴⁾ 이러한 군자금 모집활동의 공로로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으로부터 격려편지를 받았고, 이갑성(李甲成)·오광선·이규갑(李奎甲) 등에게도 직접 군자금을 전달했다고 한다.⁴⁵⁾

군자금 제공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비밀연락처로 마련한 아일랜드계 영국인 조지 루이스 쇼가 운영하는 안동현의 무역회사 겸 선박대리점인 이룡양행(怡隆洋行) 2층의 안동교통사무국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룡양행을 통해 군자금을 전달하던 장형은 임시정부의 요청에 따라 태평양회의에 발송할 한국독립청원 문서를 작성하는 거사도 참여하였다. 1921년 11월 11일부터 이듬해 2월 6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태평양회의에 상하이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국내 각지의 지도자들이 한국독립을 청원하는 문서를 발송하는 일이다. 장형은 ‘반도고학생친목회’라는 외곽단체를 만들어 국내 각지를 돌아다니며 계몽 강연회를 열어 의연금 모금과 함께 단체대표 372명의 서명을 받아 ‘태평양회의서’를 만들어 열국 대표들에게 제출했다.⁴⁶⁾

장형의 독립군 군자금 조달과 임시정부 독립청원 운동 및 전국 순회강연회 개최 등의 활동은 대부분 한의사로 위장해 활동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생전에 “독립군 군자금 조달이라는 어렵고 무거운 공작을 하면서 한의사로 위장하고 유사의료업자 노릇을 한 적이 있었는데, 도중에 수차례 투옥되었다.”고 회고한 바가 있다고 한다.⁴⁷⁾ 장형은 ‘유사의료행위를 빙자한 사기혐의’로 1930년 9월 구속되기도 하였다. ‘심령치료술로 사기행위를 벌여 거액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신의주에서 피체되어 공판에 회부된

것이다.⁴⁸⁾ 1938년에도 같은 죄목으로 피체되어 징역 1년형을 언도 받았다. 판결문에 의하면, 장형은 1923년부터 경성에 치료소를 설립하고 일종의 정신통일에 의한 질병치료를 하였는데, 치료비를 융통하다가 사기죄로 고소되었던 것이다.⁴⁹⁾

하지만 장형을 통해 만성 소화불량이나 악성종기, 흉복통, 복막염 등을 앓다가 병을 고친 환자들은 그가 “전혀 약을 쓰지 않고 몸을 안마하기만 하였는데” 나아졌다고 진술했다. 그의 연보에 “한의(韓醫) 침구술(鍼灸術)을 교습받고 유사의료업자(類似醫療業者)로 신분을 위장하고 비밀공작 활동하다.”는 내용이나 “한의사 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해 상당한 교습을 받았었고, 또한 제법 훌륭하게 치러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20여 년간이라는 긴 세월이었으니 가끔 한의사 위장 공작활동이 탄로되어 옥살이를 할 때가 있었다.”는 장형의 회고와도 일맥상통한다.⁵⁰⁾ 이러한 사실로 보아 장형은 한의사인 부친으로부터 진맥과 침술에 대한 기초는 물론 도인으로부터 치료술을 배워 한의학을 접목한 의술로 많은 이들을 치료하였고, 이를 통해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 군자금을 모아 만주 독립군과 임시정부에 자금을 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30년 출소한 장형은 1932년 중국 길림성 반석현(盤石縣)으로 이주하여 정미소를 운영하며 농업에 종사하였다. 정미소를 통해 번 돈을 독립군들의 무기구입을 위한 군자금으로 활용한 것인데, 이 때문에 일본 헌병들이 정미소를 습격해 불태우기도 했다. 장형은 수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 자금 모집활동을 벌이다 광복을 맞았고, 1946년 7월 환국한 이후 이듬해 11월 단국대학교를 설립하였다.⁵¹⁾

IV. 맺음말

일제의 강제합병과 한의학 말살정책으로 인해 많은 한의

43) 朝鮮駐劄憲兵隊司令部. <不平鮮人の行動 등에 관한 件>(1914.10.27.)

44) 독립유공자공훈록편찬위원회. 『독립유공자공훈록』 4권. 서울:국가보훈처. 1987.

45) 범정·해당기념사업회. 『범정 장형 연보』. 『범정연행록』. 서울:단국인회. 1986.

46) 『韓國人民致太平洋會議書』 독립신문. 1921년 11월 19일; 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8권. 과천:구미위원회Ⅱ. 2007; 박성순. 『우당 이회영과 범정 장형의 발자취를 찾아서』. 용인:단국대출판부. 2015:60-68.

47) 범정·해당기념사업회. 『범정연행록』. 서울:단국인회. 1986:280.

48) 『심령술로 우민사기, 수만원을 편취, 신의주에 잡혀있는 장세담 2일부로 예심종결』 동아일보 1930년 9월 4일.

49) 『昭和13年 刑控 第316號』; 『昭和13年 刑控第316號』; 『昭和13年 刑上 第167號』; 이동희. 『일제강점기 사법처분을 통한 독립운동가 탄압-범정 장형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양학. 2015:58:135-150.

50) 범정·해당기념사업회. 『범정연행록』. 서울:단국인회. 1986:280, 636.

51) 박성순. 『우당 이회영과 범정 장형의 발자취를 찾아서』. 용인:단국대출판부. 2015:69-78.

사 출신의 민족지사들이 1919년 3·1운동은 물론 비밀결사 활동, 만주 독립군 및 의열투쟁 등에 참여했다. 한의학을 배운 자로서 항일 의열투쟁을 펼친 인물 중에는 대한국민노인동맹단 단원으로서 남대문 역사에서 신임 조선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강우규 의사와 1920년 의열단의 제1차 암살과 피계획에 참여한 김관제를 꼽을 수 있다. 평안남도 덕천군 출신으로 한학을 공부하다 한의학 기술을 배운 강우규는 한 의원을 열어 동네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의원 역할로 재력을 모아 학교를 세우고 교장이 되었다. 1919년 블라디보스톡에서 대한국민노인동맹단에 가입해 독립만세운동을 벌이려던 강우규는 동지들의 평화적 시위가 무산되자, 수류탄 1개를 구입해 서울로 잠입해 남대문역에서 사이토 총독에게 수류탄을 던져 37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사형을 구형 받은 강우규는 흐트림 없이 당당하게 항일 의지를 피력하다가 66세의 생을 마감하였다.

경남 김해에서 한의원을 개원하며 비밀청년단체를 조직했던 김관제는 1911년 만주로 망명해 민족학교 교사로 활동하다가 국내로 귀환해 3·1독립만세운동을 지도하였다. 1920년 35세의 김관제는 고향 김해에서 한의사로 활동하다가 의열단의 제1차 암살과피계획에 연루되어 피체되었다. 의열단 단원으로 국내거사를 기획한 이종암의 각기병을 치료해주며 은신처를 제공해 준 혐의이다. 이후 그는 대구에서 복양당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독립운동을 후원하였다.

1919년 3.1 운동 이후 많은 항일 무장독립운동단체가 창설되었는데, 의생 출신으로 만주 독립군 부대에서 활동한 이들은 독립군보합단의 군의 박세정과 대한독립청년단연합회의 심병조와 안형보, 대한광복단의 김대용과 박성용, 대한독립단의 강홍상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독립군보합단은 1919년 평북 의주군 동암산에서 창설된 결사대로 군자금을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송금하는 한편, 무기를 구입해 일제 관공서 등 주요 기관 파괴와 친일 밀정 처단 등의 활동을 벌였다. 47세 나이로 군의로 참전한 박세정은 의생으로서 독립군 단원과 부상병, 환자 등을 치료했다고 한다.

1919년 11월 만주 관전현에서 공화주의를 지향하며 상하이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단체인 대한독립청년단연합회에 가입한 심병조와 안형섭은 의생 출신으로 독립군부대에 참여하였고, 피체되어 수형을 받은 후에도 항일활동을 계속하였다. 연해주 추봉에서 결성된 대한광복단은 군자금 모집원을 국내로 잠입시켜 활발히 모집했는데, 1920년 12월 평남 강서경찰서에 의해 피체된 단원 중에는 47세의 '의생 김대용'을 찾아볼 수 있다. 만주 유하현 삼원보에서 조직된 대한

독립단도 일본 군경 및 친일파 공격과 군자금 모집 활동이 활발히 펼쳐졌는데, 1921년 10월경 피체된 단원 중에는 당시 46세의 '의생 강홍상'이 포함되어 있다.

한의사 출신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으로 참여하여 군자금을 모금해 지사로는 이원직을 꼽을 수 있다. 서울 태생의 이원직은 1920년 4월 임시정부의 경성교통국을 설치한 후 한의사라는 직업을 이용해 자유롭게 지역유지의 집을 방문해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그는 당시 종로경찰서의 순사를 비롯해 학생과 순사 등에게 독립신문 배포는 물론 군자금 모집과 공채 모집 활동도 펼치다가 징역형을 받았다.

한의사 출신은 아니지만, 의생의 아들로써 부친으로부터 배운 의술을 바탕으로 독립군 양성과 임시정부를 위한 군자금 모집활동을 벌인 지사로 범정 장형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그의 독립 군자금 모금과 임시정부 독립청원 운동, 전국 순회강연 활동 등은 대부분 한의사로 위장해 활동했기에 가능했는데, 이로 인해 '유사의료행위를 빙자한 사기혐의'로 수차례 투옥되기도 하였다. 부친으로부터 진맥과 침술에 대한 기초는 물론 치료술을 배워 많은 이들을 치료한 장형은 이를 통해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 군자금을 모아 만주 독립군과 임시정부에 자금을 전달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1.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서울:대한민국공보처. 1949.
2.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 인물실록』. 파주:들녘. 2011.
3.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서울:한울출판사. 1997.
4. 박운재. 『한의학, 식민지를 앓다』. 서울:아카넷. 2008.
5. 김영범. 『의열투쟁 1- 1920년대』. 천안: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6. 정운현. 『강우규 : 노구를 민족제단에 바친 의열투쟁가』. 서울:역사공간. 2010.
7. 은혜린. 『강우규 평전 : 항일의열투쟁의 서막을 연 한의사』. 서울:책미래. 2015.
8. 황영원. 「일제의 조선 한의계와 한의학의 식민지적 근대」.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8.
9. 박결순. 「1920년대초 국내무장투쟁단체의 활동과 추이 : 평북 거점 천마산대, 보합단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3:281-315.

10. 김창수. 「일우 강우규의사의 사상과 항일의열투쟁」. 이화사학연구. 2003;30:471-485.
11. 신동원. 「1910년대 일제의 보건의료정책-한의학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근대사학회와 문화2. 2005:333-370.
12. 박환. 「강우규의 의열투쟁과 독립사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008;55:117-160.
13. 박지현. 「식민지기 의생제도의 정책과 운영 - 『의료관계법제례규철(醫療關係法制例規綴)』 중 의생 관련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2019;106:317-343.
14. 박주성, 김재기. 「러시아 연해주 3·1독립만세운동과 대한민국노인동맹단 연구」. 재외한인연구. 2020;52:42-82.
15. 왕원균. 「한의사 출신 독립운동가 이원직-대한민국임시정부 경성교통국 활동을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대학원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1.
16. 정상규, 신민식. 「신홍균 한의사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의사학회지. 2021;34(1):31-46.
17. 이상화. 「독립운동가 신홍균 한의사에 대하여」. 한국의사학회지. 2022;35(2):69-82.
18. 이계형, 신민식, 정상규. 「『월남유서』를 통해 본 신광열의 생애와 독립운동」. 민족문화논총. 2022;82:451-486.
19. 정다원, 복기대. 「대일항쟁군의 전통의학 이용에 관한 고찰」. 역사와융합. 2023;14:517-540.